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바로,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니깐요!!



희망의 소비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희망무역(Fair Trade) 상품을 구입하실 때마다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힘은 바로 당신의 희망의 소비에 있습니다.
(희망무역 온라인 쇼핑몰 _ <http://www.ecofairtrade.co.kr>)

희망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희망무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적극적인 자원활동까지 당신의 참여가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무역 자원활동 카페 _ <http://cafe.daum.net/ecofairtrade>)

희망의 알릴이가 되어주세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무역을
알려주세요. 휴피에 배너를 달거나 글을 남기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바로 희망의 가능성입니다.
(희망무역 캠페인 _ <http://www.ecofairtrade.or.kr>)

기업들이 희망무역을 참여하도록 희망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단골인 가게와 대형 상점에
희망무역 물품을 요구하세요. 또는 기업에게 생산자들의 삶과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상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세요. 깨어있는 소비자인 당신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구를 살리는
착한 무역, Fair Trade!!

 여성환경연대 (사)여성환경연대 www.ecofem.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8호 (우110-761)

전화 02-722-7944

전송 02-723-7215

이메일 ecofairtrade@hanmail.net



Fair Trade(희망무역)란?

희망무역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적 세계화 운동입니다.

희망무역은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해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가 공평하게 지불되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반한 무역동반자관계는 지구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희망무역은 생태계와 문화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희망무역은 생산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그 나라와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맞는 농업과 전통기술을 살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안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희망무역은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 수작업 기술을 상업화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생산자들은 자신이 직접 개발하고 창조한 예술품의 장인으로 존중받습니다.

희망무역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지원합니다.

희망무역은 가난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희망무역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역사회 발전의 개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입, 안전한 작업환경,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새로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희망무역은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무역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노동착취, 환경파괴가 없는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간 유통에 의한 착취를 배제한 직거래는 소비자들에게 생산자들의 정성이 담긴 안전한 물건을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 소비, 일명 ‘착한 소비’란 사람과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만들어진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부도덕한 대기업의 제품 또는 반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대신 국내 친환경농산물과 대안물품, 친환경용품, 희망무역(fair trade)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것. 또한 아무리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일지라도 생산, 유통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노동자를 착취시켰다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 행태를 말합니다.

‘비용의 최소화’, ‘효용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비에 ‘윤리’나 ‘도덕’이니 하는 단어가 붙는 것이 낯설긴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의 문제인 환경문제나 세계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도 사회운동의 한 방법이며 윤리적 소비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동 노동으로 만들어진 축구공, 인도 수자원을 착취하는 콜라, 현지 소작농에게 헐값에 원두를 사오는 커피,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자행하는 화장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비롯하여,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으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적극적인 구매 방법 등이 윤리적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무역’을 넘어 ‘희망무역’을, 나만을 생각하는 ‘나쁜 소비자’를 넘어 이타적인 ‘착한 소비자’로 나와 이웃과 자연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자로 거듭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





❖ 희망무역의 필요성

인류 문명이 생긴 이래로 무역은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일부로써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물 교환에서부터 시작된 무역은 21세기에 이르러 생산자와 제조업자, 개인 투자자, 은행, 중간거래상 등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거대한 하나의 지배 구조가 되었습니다. 무역은 경제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불공정함과 불평등의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간 어느 누구의 제어와 비판도 받지 않고 진행된 세계화가 경제적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시장 자유화'와 '자유무역'입니다.

자본은 그 누구의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더 낮은 임금과 생산비용, 허술한 환경기준이 있는 곳을 찾아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지난 50년간 이룩한 기술, 과학의 발달과 축적된 부에서 오는 원조는 오히려 제 3세계의 가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자유 무역구조 아래 제 3세계의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노예농장과 같은 일터로 내몰렸으며,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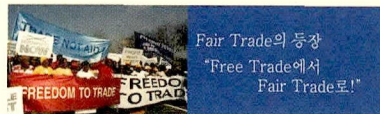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가난”은
“누군가의 감당할 수 없는 부”와 이어져 있습니다.



❖ 희망무역의 역사

희망무역은 20세기 초 식민지 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북반구 나라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희망무역을 시작한 단체는 미국의 텐 사우전드 빌리지와 영국의 옥스팜 등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사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원조가 아닌 무역을!” (Trade Not Aid)이란 구호아래 제3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퍼집니다. 이는 선진국과 가난한 제3세계간의 불공평한 무역구조를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새로운 연대를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관계로 바꾸려는 운동으로 희망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전환이었습니다.



Trade Not Aid!

“세계 무역구조에서 개발도상국이 얻는 이익은
단 1%만 올라도 세계 1억2천8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Oxfam)

희망무역이 지금과 같은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주류 시장경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공정무역 커피의 대명사인 '맥스 하벨라르'가 등장한 1980년대부터입니다. 이후 희망무역은 북미와 유럽을 넘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인간적인 시장을 만드는 대안기업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세계 희망무역 전체 매출액은 약 2조원으로 2005년에 견줘 41%나 증가했습니다. 커피, 바나나, 수공예품 등 일부 품목에서 시작된 희망무역은 이제 농산물은 물론 설탕, 초콜릿, 와인과 같은 가공식품, 나아가 면제품, 청바지에 이르기까지 그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2007년 현재 전세계 희망무역 단체 연합체인 IFAT(International Fair Trade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세계 70여 개 국가, 300여 개의 단체, 100만 명의 생산자들이 희망무역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희망무역의 10가지 원칙

1 가난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불공정한 무역구조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무역의 목표입니다.

2 투명성과 책임성

희망무역은 투명한 경영방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3 생산자의 실력 키우기

희망무역은 생산자들이 경제적으로 당당한 위치를 되찾고 홀로 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4 희망무역 (Fair Trade) 알리기

희망무역 참가자들은 정직한 홍보를 통해 상품과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이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5 공정한 가격

공정한 가격은 생산 원가와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자연환경에도 유익한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6 성 평등

희망무역은 여성 생산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정당한 지위와 임금을 보장합니다.

7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희망무역의 생산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8 아동 노동 금지

희망무역은 부모의 안정된 소득을 통해 아동의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9 환경의 지속가능성

희망무역은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산 기술을 사용합니다.

10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

희망무역의 모든 참가자들은 연대와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희망무역의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IFAT (International Fair Trade Association)



Fair Trade Mark



FTO 마크

- 2004년 세계사회포럼(the World Social Forum, 인도 뭄바이)에서 제정.
- IFAT의 150개 이상의 공정무역 조직이 사용. (Oxfam, PeopleTree, the Network of European World Shops, Caf direct 등)
- 공정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사업자, 정부, 후원자들 사이에 공정무역조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들에게 더욱 넓어진 시장기회를 제공.



Fair Trade Labelling

- 1997 년 비영리 인증조직이 모여 연합체를 조직하고 공동의 인증마크를 개발.
- 국제 공정무역 생산품의 기준 설정, 모니터링, 생산품 인증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원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우리의 생산물을 구입하기만 한다면 원조 없이도 우리는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멕시코에서 생산자, 이사이아스

"정당한 임금으로 나는 자존감을 되찾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 칠레에서, Gonzales

"여성이 소득을 얻고 수입을 직접 관장하게 되면 이를 가족, 특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일은 가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량생산과 분배를 증진하고 지역의 취약한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핵심이다."

— 세계식량농업기구 보고서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



나쁜 면화 이야기

면화는 수세기 동안 인류의 농업과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백색의 금(White Gold)"이라 불린 면화는 산업혁명의 초기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면화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섬유 50%인 면직물을 위해 전 세계 60여 개 국가의 농민들이 면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영세농민들입니다. 변동이 심하고, 불공정한 국제면화 가격에 가난한 나라의 1억의 농가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전 세계 농경지의 5%에 불과한 면화 재배지역에서 전체 농작의 약 10%와 살충제의 25%가 쓰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은 토양과 수자원을 파괴하고 농민들은 알 수 없는 병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착한 유기농 면화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면화의 어두운 그늘에서 유기농이라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농민들은 다국적 종자회사의 유전자 조작 씨앗이 아닌 자신들의 흙에서 가장 적합한 토종 씨앗을 심습니다. 또한 농약 대신에 자연에서 얻은 살충제와 천적이 해충 피해를 막고 화학비료 없이도 작은 동식물의 생명력과 퇴비가 땅을 기름지게 하며 수확기에 농민들은 목화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거두어들이 수 있습니다.



유기농 면 재배지와 유기농 면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만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유기농 면화는 바로 잃어버린 씨앗과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세계 3위 면화 생산국 인도에서는 지난 6년간 1만 명이 넘는 농민이 자살을 했습니다. 비싼 유전자 조작 종자 값과 좋지 않는 농약 사용, 면화 가격의 폭락이라는 악순환이 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인도의 환경활동가, 만다나 시바



나쁜 옷 이야기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에서 시작되었던 세계 의류 생산 공장들은 더 낮은 임금, 더 낮은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제3세계 국가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입는 선진국 유명브랜드의 티셔츠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하청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들 공장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억압과 노동 착취는 심각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물건을 생산하며 세계 의류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다국적 의류 기업의 횡포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일을 하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한 옷 이야기

하지만 희망무역에서 만나는 옷들은 다릅니다. 희망무역의 의류들은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발판이 됩니다. 또한 공장의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자연을 해치며 생산하는 옷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기술과 자연을 살리는 상품개발로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는 생산자의 이야기가 담긴 상품의 거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연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이야기

커피의 최종소비자 가격 중 생산자들의 몫은 0.5%
커피 한잔의 가격은 4,000원, 커피 농민들의 몫은 20원



초콜릿 이야기

1,000원짜리 초콜릿의 코코아 농장 농민의 몫은 20원.
코코아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씩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25만명의 아이들.



축구공 이야기

100,000원이 넘는 축구공 하나를 만드는데
파키스탄 아이들이 받는 임금 150원.
때로는 유독물질에 눈이 멀기도 하는 아이들.



청바지 이야기

100,000원이 넘는 유명 청바지를 만드는 멕시코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270원.
4인 가족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은 여자이고 48명은 남자입니다.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이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아메리카 사람, 12명은 유럽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입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 부분발췌 :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도넬라 메로스, 국립미디어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it's Fair Trade!



희망무역과 아동 노동

2004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13.9%, 2억4천6백만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인근 아프리카 어린이의 25%,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어린이의 18%와 남아메리카 어린이의 5.1%가 학교가 아닌 위험한 작업장에서 소중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7천3백만 명의 어린이들은 10세 이하이며, 1억 8천만 명의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6백4십만 명의 어린이들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현대판 노예시장과 인신매매의 덫에 묶여 있으며, 매춘과 포르노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통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 범위만 조사한 것이므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노동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제분야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린 노동자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물론 정규 교육과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어른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임금이 싼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Fair Trade의 희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변화시켜 빈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경제활동의 정당한 몫이 보장된다면, 아이들은 일터가 아닌 학교에 갈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Fair Trade는 어른들의 희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순수한 희망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착한 도전입니다.



희망무역에 참여해야 할 25가지 이유



희망무역은...

- 1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희망을 찾아주는 무역입니다.
- 2 소농민들은 더 공정한 가격을 받습니다.
- 3 소비자들은 공정하게 거래된 제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 4 생산자들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5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무역입니다.
- 6 여성과 여자 아이들의 권리가 증진됩니다.
- 7 우리들은 글로벌 시민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8 생산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한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 9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 10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합니다.
- 11 인권을 신장하는 새로운 무역입니다.
- 12 생산자와 소비자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게 됩니다.
- 13 농약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농법으로 세상을 푸르게 만듭니다.
- 14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없앱니다.
- 15 가난한 생산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 줍니다.
- 16 유전자 조작 식품을 거부합니다.
- 17 희망무역운동으로 다국적 기업의 무역이 공정해집니다.
- 18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보장합니다.
- 19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합니다.
- 20 분쟁으로 힘겨운 팔레스타인 농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 21 소비 그 자체로 지구촌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 22 협동조합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23 희망무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 24 문화와 생물 다양성을 지킵니다.
- 25 이러한 이유로, 희망무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착하고 좋은 곳으로 바꿉니다.



국내 희망무역 관련 조직

두레생협 : <http://www.dure.coop>

두레생협연합회는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민중교역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상품 : 마스코바도 설탕,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아름다운 가게 : <http://www.beautifulcoffee.com>

아름다운 가게는 "생산자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기쁨을"이란 기치아래 대안무역 네팔산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상품 : 히말라야의 선물(커피)

여성환경연대 : <http://www.ecofem.or.kr>

아시아의 여성환경문제를 위해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해 온 여성환경연대는 아시아의 환경파괴와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생태적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시아 여성들과 희망무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무역 캠페인 : <http://www.ecofairtrade.or.kr>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 <http://www.ecofairtrade.co.kr>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는 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이 만든 자연주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여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시민주식회사입니다.

관련 상품 : 자체 브랜드 그루(오가닉 코튼 의류, 자연소재 의류) 및 홀데코, 패션소품, 향신료

한국YMCA 전국연맹 : <http://www.ymcakorea.org>

동티모르 평화재건을 위해 시작한 한국YMCA후원회의 공정무역은 Peace Coffee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관련상품 : 피스커피(커피)

그 외

가나다순

국외 희망무역 관련 조직

Equal Exchange - <http://www.equalexchange.com>

1986년 설립된 Equal Exchange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Fair Trade 회사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농민 협동조합에 의해 유기농으로 생산된 커피, 차, 설탕, 코코아, 초콜릿을 판매합니다.



Fairtrade Labelling Organisations International (FLO) -

<http://www.fairtrade.net>

FLO는 세계 각국에서 페어트레이드를 시작한 여러 조직의 일들을 조정하고 감시하고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위단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lternative Trade (IFAT) -

<http://www.ifat.org>

IFAT는 개발도상국의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와 복지를 개선하고 국제 무역의 불공정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전세계적인 페어트레이드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Max Havelarr - <http://www.maxhavelaar.ch>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멕시코 오악사카 지방의 커피농민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통한,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기 위한 무역회사로 출발한 Max Havelaar는 페어트레이드 최초로 라벨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Nepali Bazar - <http://www.nbazaro.org>

네팔라바자르(Nepali Bazar)는 일본의 페어트레이드 전문 회사로써, 네팔을 중심으로 수공업품과 식품을 판매하고 생산자들과 함께 상품을 개발하는 페어트레이드 조직입니다.

OXFAM - <http://www.oxfam.org.uk>

Oxfam은 40년 이상 된 페어트레이드 선구자들 중 하나입니다. 탄생초기부터 Oxfam은 페어트레이드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영국에서의 페어트레이드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People Tree - <http://www.peopletree.co.uk>

People Tree는 페어트레이드 패션의 선구적인 업체입니다. 3세계 생산자들과 농민들과의 지속가능한 상호관계로 만들어 진 페어트레이드 유기농 면의류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Ten Thousand Villages - <http://www.tenthousandvillages.com>

1946년부터 Ten Thousand Villages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지역의 가난한 제 3세계 국가의 수공업품 장인들이 만든 다양한 상품의 판매를 지원한 명실상부한 북아메리카의 가장 큰 페어트레이드 단체입니다.

Trade Craft - <http://www.traidcraft.co.uk>

1979년 이래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 가난과 싸워왔고 온 세계가 빈곤의 불명예로부터 벗어나 인간과 사회가 함께 번창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